

의사 아닌 학문의 길 ... 보람의 삶

의과대학 동기 65명중 예방의학자의 길을 택한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었다. 밤낮 구별없이 대학서 지새운 대학 조교생활 4년, 국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 하와이대서 '질병역학과 통계학 연계과정'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연구현장에서 젊음을 불태운 삶의 여정에 지금 나는 만족한다. 젊어서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교육에 시간을 보내는 학문의 길은 내가 선택한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孟光鎬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 의사의 길이고, 둘째는 의학에 관한 기초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학자의 길이며, 마지막 세번째는 건강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는 예방의학자의 길이다.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의학도 기초의학에 함께 포함시켜 분류하고 있지만, 학문의 내용이나 방법론상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아무튼, 어느 나라에서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 대부분은 임상 의사

가 된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고 또 의학교육의 원래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의과대학을 마치고 임상 의사가 아닌 순수 기초학이나 예방의학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역시 '사서 고생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의 의과대학 동기 65명 중 기초학자의 길을 택한 사람이 한사람, 그리고 예방의학자의 길을 택한 사람이 하나였던 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길이었다기 때문인지, 나의 대학조교 4년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열성적이었던 것 같다. 집도 아예 대학 근처에 세를 얻어 이사를 했고, 주말은 물론 밤낮도 없이 대학에 나가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새롭다.

밤낮없이 대학에 묻혀

물론, 이 기간동안 나의 공부는 장차 어떤 세부전공을 선택해서 일생을 마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기간인 셈이었는데,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나는 첫번째 아주 어려운 결정을 놓고 고민을 해야만 했었다. 그것은, 당시

우리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들 모두가 초대 주임교수의 뒤를 이어 산업의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교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방의학의 다른 분야 세부전공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 일을 내가 해야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후로 인구 및 가족 계획, 병원 및 보건행정학 등을 잠시 잠시 공부하다가 지금은 질병역학에 정착을 했지만,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미 여러 교수들이 닦아놓은 산업의학 분야 학문연구를 그대로 이어 받아 공부했던들 고생도 덜 했겠지만, 이루어 놓은 일도 지금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조교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과, 무엇보다 좀더 발전된 보건학 분야 공부와 연구에 대한 갈증이 극도에 달한 것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는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이런 꿈은 1972년 이후 74년까지 매년 한두달씩 미국과 호주 등지에 나가 단기 보건학 관련 연수를 받게 되면서 더욱 강렬해졌고, 결국 1975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장학금을 얻어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 있는 Johns Hopkins대학 보건대학원으로 공부를 떠나게 됨으로써 일단 꿈을 실현하게 된다. 이때 이미 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친 뒤여서 일단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 대학을 가게 되었지만, 금세 나는 미국에서 다시 박사학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내 뜻이 받아들여져 1976년 봄학기부

터는 그 곳 보건대학원에 새로운 박사 과정 학생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내 학문연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련을 겪게 된다. 그것은 당시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의 장학금 조건이 애당초 인구와 보건에 관한 연구계획에 근거한 것이었고, 따라서 내 학위과정도 이 분야 학과에 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 일이 내가 평생 해야 할 학문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1976년 가을에 일단 귀국을 하게 되지만, 이때 나는 이미 상당수준 보건학 분야 연구열정과 그 방법에 길들여져 있었고, 1977년에는 무려 12편의 크고 작은 논문을 발표해서 당시 의사신문이 제정한 학술상부문 다작연구상을 타기도 했던 것이다. 주로 지역사회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련 사회조사 성격의 연구들이어서 그동안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년도 안된 젊은 조교수의 연구성과로는 역시 괄목할 만한 일로 평가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연구논문 중, 평화시장 의복제조업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건강실태와 관련 사회의학적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 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중앙정보부로부터의 지적과 위협적 경고에 한 동안 가슴을 조였던 일은 지금은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꿈을 버리지 않고 있던 나에게 행운이 온 것은 1979년의 일이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가 정치, 경제,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해 4~5명 정도의

장학생을 뽑는 시험에 의학 전공자로서는 내가 처음 선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왕복 여비는 물론 학위를 마칠 때까지의 등록금, 집값, 생활비, 심지어 책값까지 대주는 이 장학금은 당시 국내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유학 지원프로그램이었던 것인데, 내가 운 좋게 여기 뽑힌 것이다. 사족이지만, 당시에 다른 장학금이 있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유명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지만 역시 좋은 장학조건 때문에 동서문화센터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혜택으로 그 동안 하와이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2백여 명이나 된다. 이들 대부분이 대학교수나 정계, 재계에 넓게 진출하고 있어서 동서문화센터와 하와이대학 동문의 국내 활동은 지금 미국 어느 단일 대학 출신들보다 활발한 편이다. 1979년 이후 1983년까지 하와이대학에서 질병역학과 통계학 연계과정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때를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로 생각한다.

늦은 나이에 유학떠나고

다 늦은 나이에 하는 공부여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래서 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공부와 연구에 몰두했던 이 시기의 일들은 어느 것 하나 그림자 없었던 것이 없다. 당시 우리나라 보건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했던 다변량분석 통계 프로그램에 매료되어 온갖 통계 자료를 구해 이를 분석해 보느라 수도 없는 밤을 컴퓨터센터에서 밝히던 일, 사회조사방법 수업을 위해 낯선 이웃 집 문을 두드려 녹음기를 들이대고 설

문 인터뷰를 하고 다니던 일, 몇주마다 돌아오는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집사람을 앞에 놓고 밤새워 세미나 발표 리허설을 하던 일 등등 지금은 모두가 그리운 옛 일들이다.

대학건물 4층 허름한 개인연구실에서 학위논문 마지막 결론부분 타이핑을 끝내던 1983년 1월 어느날 오후, 부슬비 내리는 창문 밖 교정 나무숲을 내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게 된다. 뭐랄까, 때늦은 나이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논문을 끝낸 흥분분함과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잠시 그렇게 감격하게 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연구현장에서 떠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꽤 오래 대학 행정 일에 관여해온 탓도 있지만, 다른 자연과학 분야 연구와 달리 내가 전공한 질병역학 연구는 실험실 연구가 아니고 병원이나 지역사회 현장조사를 기본연구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입장에서는 주로 후학들의 연구 계획과 자료분석 방향 등을 자문해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몇년 전부터, 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의학교육방법과 의료윤리 교육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역시 나의 입장변화에 대한 자각 때문이지만, 나는 이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젊어서는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연구보다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밟아야 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⑤7